



2026. 8. 18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총량 완화에 숨 트인 카뱅·토뱅... 신규대출 공급 타이밍 앞당긴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5MNBsV>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를 목표치를 확대하면서 시중은행 대비 대출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은 인뱅들이 주택담보대출과 분양잔금대출 등 신규 상품 공급 여력을 확보 다만 이번 총량 확대가 곧바로 인뱅 3사의 기존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인데, 당국이 늘어난 공급 여력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기 때문

5대 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3.27%...통계 작성 이후 최고

더팩트 <https://zrr.kr/sqfRvF>

5대 은행의 6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3.27%로, 전월 평균보다 0.04%p 오른 수준이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롤러코스피'에 주목받는 지수연동예금

매일경제 <https://zrr.kr/HHbOIC>

5대 은행의 지난 7월 ELD 판매액은 총 1조1009억원으로 전월 판매액 7802억원보다 약 41% 늘어난 규모이며 올해 들어 월간 기준 판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7월이 처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수 흐름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LD로 자금이 몰린 것

R&D·투자 세액공제 지방은 최대 1.5배...지방銀 기업대출 '새 먹거리' 되나

더팩트 <https://zrr.kr/q4FmEC>

정부가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에서 최대 1.5배 우대하기로 하면서 지역 기업을 주요 영업 기반으로 둔 지방은행의 기업금융에도 기회가 될지 주목 지방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 실제 투자가 늘어나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 은행 대출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

"과리율 2% 맞추다 시장 변동성 더 키울라"...LP 부담 커지는 ETF

이데일리 <https://zrr.kr/opLFka>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과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업무 부담이 커질 전망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과리율을 맞추기 위한 LP의 호가·헤지 거래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실적 잔치' 증권사들...다음 격전지는 'AI 투자'

아이뉴스24 <https://zrr.kr/lvz5uu>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과리율을 맞추기 위한 LP의 호가·헤지 거래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시를 투자 도구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증권사들도 이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풀이

규제에 '발공공'... 보험업계 "도심 요양시설 공급 어렵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qJOJDb>

요양·돌봄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도심에서는 높은 땅값에 더해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까지 겹치면서 민간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높은 상황 보험업계에선 자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장기 임차 방식의 요양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고령화에 치매·간병보험 질주...보험사는 '팔수록 고민'

이데일리 <https://zrr.kr/PjAoa5>

보험사들이 치매와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 판매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계약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지계약도 꾸준히 나오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고민 잠재적인 보험 수요 확대에도 치매 이후 발생하는 간병과 돌봄 비용까지 보험으로 보장하려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보험사들은 담보를 축소하는 분위기

비트코인 거래 말라간다...현물 거래대금 7년 만에 최저

이데일리 <https://zrr.kr/PUT8gO>

거시경제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와중에서도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거래대금이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 시장 내 유동성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사실상 레버리지 거래가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우린 서클과 달라'...테더 CEO "자체 블록체인 안 만든다"

이데일리 <https://zrr.kr/5Pagh9>

USDT 발행사인 테더 CEO 아르도노가 테더가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해 발행, 결제, 정산까지 수직 계열화하는 '스테이블체인'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 그는 테더가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할 계획이 없으며, USDT는 앞으로도 외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것이라고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